

내 인생 2막은 왕이메 오름에서!

왕이메 오름 양 태 문

“여보, 아침식사 하세요” “응. 알았어. 이따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까 얼른 출근해.” 밤새 티비를 시청한터라 아직도 꿈나라다. 퇴직하면 잠도 싫컷 자고 원 없이 한번 놀아 보는 것이 내 소원이었다. 여행도 가고 멀리 사는 친구도 찾아가면서 즐겁게 생활하리라 마음먹었는데 막상 1년이 지나니 무료해 지기 시작하였다.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 거리거나 티비를 보면서 소일 하는게 어느덧 하루 일과가 되고 말았다. 퇴직하기 전 인생선배들이 충고하길 “최소한 5개의 동호회에 가입”하라고 귀가 따갑게 들었다. 그래야 “월,화,수,목,금요일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주말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고. 그런데 나는 이 말을 귓등으로 흘려 듣고 말았다.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의 이모작을 알차게 보낼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틈틈이 배운 중국어 실력으로 관광안내 봉사도 하고, 산을 좋아 하니까 가끔씩 산에도 올라가고, 그리고 환경도 부전공 했으니까 내 고장 환경을 지키는 일을 하면 보람되게 내 인생 2막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활동할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친구가 없었다. 혼자서 며칠 활동하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고 집에서 무료한 생활을 하다 보니 티비가 나의 가장 중요한 친구가 되고 말았다.

바로 이 때 한 친구로부터 “야! 너 산 좋아 하잖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중장년 일자리 이음사업으로 ‘오름매니저’를 모집한대, 너 한번 응모해 봐!”라는 말을 듣고 고용센터에 가서 서류를 제출 하였더니 며칠 후 인터뷰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인터뷰를 거치고 기본교육을 마친 후 “왕이메오름” 근무를 하게 되었다.

왕이메 오름은 애월읍 화전리에 위치해 있는데 산 입구에 들어서면 순간 더덕향 같은 상산나무 관목향이 코끝을 훅~ 찌른다. 일상생활에서 찌들었던 스트레스가 단번에 날아가 버리는 느낌이다. “옛날 탐라국 삼신왕이 여기서 기도를 드렸다” 하여 “왕이메오름”이라 부르기도 하고 “소가 누워 있는 모습과 같다” 하여 “臥牛岳”(와우악)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오름은 멀리서 보면 야트막한 산등성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해발 612미터나 되는 큰 산이다.

우리 왕이메 오름매니저는 총4명으로 모두 수요일 오전, 금요일 종일 근무하며 출근하자마자 숲 속에 둘러 앉아 진한 커피 한 잔씩 따라 놓고 오늘 할 일과 각자의 건강을 물어보는 것으로 하루를 연다.

등반로 입구를 지나면 울창한 삼나무 숲이 나오고 그 길을 따라 산등성이를 올라가면 나즈막한 봉우리에 우리들만의 쉼만한 조그만 공간이 있다. 거기에 네 명이 앉아 폭

파인 굽부리를 바라보며 내가 살아온 길, 네가 살아온 길을 서로 얘기 하면서 함께 공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면서 서로 소통하다 보면 내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은 어느덧 깨끗이 사라져 버린다. 다시 때죽나무와 상산나무 관목숲을 지나면 정상에 다다르게 되는데 앞으로는 저 멀리 한라산이 보이고 뒤로는 탁 트인 드넓은 태평양이 보인다. 만약 오름매니저가 되지 않았다면 하루종일 집에서 티비만 보고 있었을텐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왕이메오름 신선이 된 느낌이다.

봄이면 파릇파릇 돌아나는 새싹 그리고 여름이면 짙은 녹음, 가을이면 붉은 단풍과 겨울이면 새하얀 설경을 바라보는 그 느낌만으로도 내 몸과 마음을 힐링해 줄 뿐만 아니라 용돈도 벌수 있게 해 주는 일석이조의 “중장년 일자리 사업 ‘오름매니저’”야말로 내 인생 2막을 풍부하게 열어 줄 것이다.



(왕이메오름에서 바라 본 한라산)